

韓國의 古活字 小考

金 錫 淳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木版印刷術이 發達되어 八萬大藏經같은 金子塔을 쌓아올렸거니와 高麗時代に 이미 金屬活字로 書籍을 印刷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卽 李奎報(1168—1241)의 詩文集 李相國後集에 「遂用鑄字 印成二十八本」이라하였고 高麗史 百官志에는 「恭讓王四年 置書籍院 掌鑄字 印書籍 有令丞」이라는 句節이 있어 當時 活字鑄造와 書籍印刷의 官署가 있었음을 窺知할 수 있다.

그러나 高麗時代의 活印事業은 한 實驗期라 보겠고 李朝初 太宗三年(1403)에 이르러 비로소 鑄字所를 두고 本格的인 活字印刷에 着手한 것이 事實이다.

本稿는 古活字의 研究라기보다 圖書館人들이 우리나라 古活字本을 取扱하는데 多少라도 參考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大體로 活字成立의 年代를 따라 그 概略을 記述하는 바이다.

× ×

癸未字(銅活字)

太宗三年(1403) 判司平府事 李穰 知申事 朴錫命 古代言 李膺 등으로 監을 삼고 軍資監 姜天濤 長興庫使 金莊侃 代言司 注書 柳英 壽寧府丞 金民 校書著作郎 朴允英 등에 管掌케 하여 數十萬字를 開城에서 鑄造하였는데 이것이 有名한 癸未字이다. 癸未字의 字範은 宋版 古註詩傳左氏傳으로 그 字體는 歐陽詢體 楷字이다. 癸未字로 印出된 書籍은 十七史纂古今通要 宋朝表賡摠類 羽翼聖經(春秋) 禮記淺見錄 太

宗實錄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筆者複刻本所藏) 등이 있다.

癸未字는 現在 殘本이 稀貴하여 落秩一冊에 二十萬원程度로 評價되고 있다 한다.

庚子字(銅活字)

癸未字로서 相當量의 書籍을 印出하였지만 글자가 좀크고 바르지 못하다하여 世宗二年(1420)에 改鑄를 斷行하였는데 이를 庚子字라고 한다. 字形이 작고 精微하며 字範은 癸未字와 같이 古註詩傳左氏傳이므로 歐陽詢體에 屬한다.

庚子字로 印出한 書籍은 資治通鑑綱目 綱目續編 老乞大 朴通事 前後漢書 直解孝經 集成小學 癸丑陳說 陳圖 戒酒文 등이 있다.

甲寅字(銅活字)

世宗은 庚子字보다 좀더 크고 아름다운 活字를 만들 목적으로 同十六年(1434) 다시 改鑄를 命하여 知中樞院事 李蕝으로 監을 삼고 集賢殿 直提學 金燦 直集 金鎭 護軍 蔣英實 僉司諫院事 李純之 訓練監 李義長 등에 管掌케 하여 約二年間에 二十餘萬字를 鑄造하였는데 이를 甲寅字라고 한다. 字範은 孝順事實 爲善陰騭 論語 등으로 世稱 衛夫人字라고 불리우는 晉體이다. 衛夫人은 晉의 書聖 王羲之의 書道之師라 傳해지며 이 晉體가 李朝의 官用文字로 使用되었다. 不足되는 글자는 晉陽大君琛(後에 世祖)에 命하여 字本을 쓰게 하였다. 甲寅字는 美麗하고 印刷가 鮮明

하여 여러번 改鑄使用된 活字이다.

甲寅字로 印出된 書籍은 列傳(筆者所藏)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蘇東坡先生詩等이었다.

丙辰字(鉛活字)

世宗十八年(1436) 晉陽大君(首陽이라고도 함) 字本의 大活字를 鉛으로 鑄造하였는데 이를 丙辰字라고 한다. 世宗實錄十八年七月壬戌條에 「命晉陽大君瑋書大字新鑄之 以新字爲綱 舊字爲目」이라 記錄되어 있는 것으로보아 이 活字는 舊活字 即甲寅字와 並用하되 特히 資治通鑑綱目的 綱을 印刷할 目的으로 鑄造된 것이 分明하다. 成宗時 成俔의 慵齋叢話에 「遂範鉛爲字 以印綱目 令所謂訓義也」라 記錄되어 있어 丙辰字가 鉛活字이고 이 活字와 甲寅字로서 綱目訓義를 印出하였음을 알 수 있다.

庚午字(銅活字) —壬申字라고도 함—

世宗三十二年(1450) 庚午에 安平大君瑀에 命하여 字本을 쓰게한 活字를 庚午字라 한다. 慵齋叢話에 「文宗改鑄庚午字命安平大君書之 名曰 壬申字」라 記錄되어 있어 庚午字와 壬申字가 모두 한 活字임을 알 수 있다. 字體는 安平大君이 蜀體 松雪字體(趙子昂體)로 썼으며 이 活字로 高麗史 入學圖說 古文眞寶 등의 書籍을 印出하였다.

乙亥字(銅活字)

다음 世祖元年(1455)에 改鑄한 것을 乙亥字라고 한다. 乙亥字는 晉蜀兼體로서 名筆 姜希顔이 字本을 쓴 活字이다. 安平大君이 쓴 庚午字를 改鑄한 理由는 世祖와 安平大君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 있다.

乙亥字로서 世宗 文宗의 實錄을 印出하

였고 訓辭 大明一統志 分類杜工部詩 大學衍義(筆者所藏) 등이 있다.

乙酉字(銅活字)

世祖가 다시 同十年(1465) 圓覺經을 印刷할 目的으로 鄭蘭宗에게 字本을 쓰도록 命하여 鑄造한 것이 乙酉字이다. 蜀體 松雪體로된 乙酉字는 字體가 바르지 못하여 成俔의 慵齋叢話에도 「怨印圓覺經 命鄭蘭宗書之 字體不整 名曰乙酉字」라고 記錄되어 있다.

乙酉字印本으로는 口訣圓覺經 文翰類選 大成 唐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辛卯字(銅活字)

慵齋叢話에 「成宗於辛卯年 用王荊公歐陽公集字鑄之 其體小於庚子而尤精 名曰辛卯字」라 記錄되어 있는데 이 活字는 往往 甲辰字와 混同乃至 同一活字視하고 있으나 記錄의 明確度로보아 辛卯字를 架空의 存在로 볼수는 없을것 같다.

甲辰字(銅活字)

成宗十五年甲辰(1484)에 鑄造된 活字를 甲辰字라고 한다. 實錄成宗甲辰八月 乙亥條에 「傳曰 予見唐本歐陽修集字體小大適中 以此字樣如何」라 있고 金宗直의 新鑄字跋에 「甲辰秋八月 我殿下 傳旨于承政院 若曰 甲寅乙亥字 極爲精好 然而字體差大 所印之書 簡帙繁重 且已歲久 散落將盡 雖補鑄而用之 不類其初 乙丙字則其字不端 不可用 予欲別鑄新字 令細大疎密適宜 以印諸書 以布四方何如」云云한 것으로 實情을 알 수 있으며 大小三十餘萬字를 鑄造하였다고 한다.

甲辰字는 晉體小楷字로서 東國輿地勝覽 東國通鑑 周禮集解 事文類聚(筆者所藏) 등의 印本이 있다.

癸丑字(銅活字)

癸丑字는 成宗二十四年(1493)에 明朝新板의 通鑑綱目字를 字本으로 하여 새로 鑄造하였다. 晉體大小楷字로서 劃이 굵고 보기 좋은 活字다.

癸丑字로 印出한 書籍은 적지않은 便이고 醫方要錄 三綱行實 小學近思錄 등이 있다.

丙子字(鎔活字)

丙子字는 中宗十一年(1516)明板 資治通鑑을 字本으로 하여 晉體中楷字로된 活字인데 甲辰字와 비슷하다.

丙子字로 印出된 書籍은 歷代兵要 新編大東聯珠詩格 朱子語類大全 唐柳先生集 등이 있다. 그리고 이 丙子字는 己卯字와 同一視하고 있는 學者들이 있는만큼 좀더 眞摯하게 研究해 보아야 할 問題일 것이다.

己卯字(鎔活字)

中宗十四年(1519) 李廷馨의 東國雜記에 「己卯七月 依中朝設書肆 以拾格罟鎔器及破毀寺刹鎔器等 鑄字印書冊 且令不抱公私與造」라 한것으로보아 銅活字外에 眞鎔活字가 있었음을 알수있고 中宗十四년에 成立된 活字를 己卯字라하며 一名 黃銅字라고도 한다.

이 活字는 晉體中楷字로 資治通鑑을 字本으로 하였다. 印出한 書籍으로는 皇明改要 二倫書綱人經 直指脈 產書 등이 있다.

庚辰字(銅活字)一再鑄甲寅字一

宣祖는 同十三年(1580)에 甲寅字를 爲本하여 庚辰字를 만들었다. 晉體衛夫人字인 이 活字는 再鑄甲寅字라고도 한다. 庚子字로 印出한 書籍은 極히 드물며 許蘭雪軒集이 庚辰字의 印本이라 한다.

以上은 李朝金屬活字印刷의 全盛時代로

서 壬辰亂을 分岐點으로 活印事業이 不振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訓練都監字(木活字)

宣朝때 改鑄한 庚辰字를 비롯하여 많은 活字가 日本軍에게 掠奪當하였거나 散逸되어 얼마동안 活印事業이 中斷되었다가 宣朝三十八年(1605)부터 光海君八年(1616)頃까지에 庚午字(安平大君筆字本)와 乙亥字를 字本으로 木活字를 만들어 書籍을 印出하였는데 이것을 訓練都監字라고 한다. 그 當時 金屬活字를 만들지 못한 理由는 戰後에 金屬材料가 不足한 때문이었고 從來 校書館에서 管掌하던 出版事業을 軍部인 訓練都監으로 移管한 까닭에 訓練都監字라 稱하게 되었다. 訓練都監에서는 印書事業으로서 軍資金을 마련하였다고하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戰後의 戰爭文獻을 編纂하려는데 더큰 理由가 있지 않았나 한다.

이 訓練都監字로 印出한 圖書는 寧社原從功臣錄券 扈聖原從功臣錄券 分類補註 李太白詩(筆者所藏) 등이 있다.

三鑄甲寅字(銅活字)

本活字는 顯宗九年戊申(1668)에 甲寅字를 爲本하여 鑄造된 活字로 三鑄甲寅字라 稱한다. 이 活字는 若干 다른데가 없지 않으나 大體로 甲寅字의 特徵을 지니고 있다.

이 活字로 印出한 圖書는 不少하며 筆者所藏分만도 初期本 周易大文 宣廟寶鑑 中期本 聖學輯要 末期本 禮記 壯子 綱目 등이 있다.

印書體 鐵活字(鐵活字)

이 活字는 肅宗初에 中國使臣에게 付託하여 入手한 木活字(唐字)를 字本으로 우리나라에서 鐵로 鑄造한 活字이다.

이 활자로 印出한 書籍中 筆者 所藏本은 初期本 三淵集 中期本 左民輯選 末期本 朱文公先生齋居咸興詩 諸家註解集覽 등이 있고 이 鐵活字에 木活字가 混入된 補刻本 風誼三選이 있다.

印書體木活字(木活字)

이 印書體木活字는 肅宗朝를 前後해서 唐字를 爲本刻字한 木活字인데 字體는 異形이 많다.

印本中 筆者所藏은 初期本 古今名喩 中期本 五子近思錄 重峯集 末期本 貞菴集 禮疑類輯 濯纓年譜 仁山集 於干集 등이 있다.

顯宗實錄字(銅活字)

이 활字는 肅宗이 父王의 實錄을 編纂할 目的으로 同三年(1677) 寫字生으로 하여금 字本을 만들게하여 鑄造한 活字이다. 이 활字는 甲寅字보다 조금 작은 느낌을 주는 활字인바 印本中 筆者所藏分은 列聖誌狀通紀 勘亂錄 世說新語補 등이 있다.

韓構字(銅活字)

肅宗朝人 韓構의 筆蹟을 字本으로 鑄造한 銅活字를 韓構字라고 한다. 이 韓構字는 肅宗初 金錫胄가 交分있는 韓構에게 付託해서 字本을 얻어 鑄造한 私有活字였으나 後에 朝廷에서 買入하였기때문에 肅宗二十一年(1695) 三月以後에 刊本은 官版에 屬한다.

이 활字로 印出한 書籍으로 筆者가 所藏한것들은 金錫胄編 麗文抄와 三大家詩集 續資治通鑑綱目 등이 있다.

壬辰字(銅活字)

英祖四十八年(1772) 甲寅字로 印刷한 心經 萬病回春을 字本으로 新活字 十五萬字를 鑄造하였는데 이를 壬辰字라고 한

다. 尹定穎의 鑄字事實에 「英宗朝壬辰 正宗大王 枉東亮 仰請大朝以甲寅字所印心經 萬病 回春二書 爲字本 鑄十五萬字 藏于藝閣 是爲壬辰字」라고 記錄되어 있다.

筆書體木活字(木活字)

이 활字는 肅宗十四年(1688)頃 甲辰字를 字本으로 刻字한 木活字이다. 그러나 甲辰字와 다른點들이 있다. 이 활字로 印出한 書籍이 많으나 筆者所藏으로는 初期本 柳州詩集 韋蘇州集 朱子學的 孔聖家語 中期本 箕雅 末期本 詩選 등이 있다.

倣陶木活字(木活字)

이 활字는 陶活字를 倣해서만든 木活字인데 英祖末葉에 刻字하였다. 筆者에게 그 印本으로 經史集說이 있다.

丁酉字(銅活字)

丁酉字는 正祖元年(1777) 甲寅字를 爲本해서 鑄造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四鑄甲寅字라고도 한다. 印出된 書籍中 筆者所藏으로는 初期本 禮記集說大全 史記英選 中期本 鄉禮合編 末期本 朱書百選 등이 있다.

再鑄韓構字(銅活字)

이 활字는 正祖六年(1778) 平壤監司에 命하여 同監營에서 韓構字를 字本으로 八萬字를 鑄造하였는데 이를 再鑄韓構字라고 한다.

生生字(木活字)

生生字는 正祖十六年(1792) 淸의 四庫全書 聚珍板式活字로서 康熙字典字를 爲本하여 黃楊木으로 만든 활字이다. 大小三十二萬餘字를 만들었다고 正祖實錄二十年三月癸亥條에 記錄되어 있다.

整理字(銅活字)

正祖二十年(1796) 生生字를 字本으로 大字十六萬字 小字十四萬字를 鑄으로 鑄

造한 것이 整理字인바 整理通攻을 印出하기 爲하여 만든 活字라고 해서 이런 名稱이 붙었다.

그 印本中 筆者가 所藏한 것은 陸律分韻, 杜律分韻, 大韓歷代史略 孟子 등이 있다.

整理字體木活字(木活字)

이 活字는 生生字와는 달리 整理字를 爲本해서 彫刻할 木活字인데 正祖二十年(1796)에 成立된 듯하다. 筆者가 所藏한 屏溪集이 바로 이 活字이다.

聚珍字(木活字)

聚珍字는 純祖十六年(1816) 中國 武英殿 聚珍字를 字範으로 만든 木活字이다.

이 活字印本은 稀少하며 筆者에게는 南公轍著 金陵集이 있다.

全史字(錫活字)

이 活字는 世稱 雲峴宮活字라고 하는데 純祖二十二年(1822)에 牧齋集을 爲本해서 鑄造된 錫活字이다. 雲峴宮活字란 興宣大院君이 雲峴宮에 두고 崇府條例 兩銓便考 등을 刊行한데서 由來하였다.

이 活字로 印出한 書籍은 大端히 많으며 筆者 所藏만도 臺山集 退軒集 知守齋集 萃泉集 四禮纂說 大東歷史 등이 있다.

小筆書體木活字(木活字)

이 活字는 哲宗九年(1858)頃 만든 木活字인데 晉體에 屬하며 印本으로 牲靈集 詩宗 夢觀詩稿 등이 있다.

三鑄韓構字(銅活字)

哲宗八年(1857)十月 昌德宮에 있던 鑄字所에 火災가 있어 韓構字를 包含한 活字七十餘萬을 燒失하였다. 그래서 翌年(1858) 다시 韓構字를 鑄造하였는데 이를 三鑄韓構字라 한다.

再鑄整理字(銅活字)

整理字도 哲宗八年(1857) 鑄字所 火災 때 燒失하고 翌年에 再鑄하였다.

陶活字(陶磁活字)

陶活字는 國立博物館에 實物이 現存하므로 陶活字版이 있었음은 疑心할 餘地가 없으나 筆者는 陶活字版을 본일이 없다. 다만 陶活字版인 듯한 極小字 經史集說이 筆者에게 있으나 實證을 얻을수 없다.

匏活字(바가지活字)

匏活字가 民間에서 使用되었다고 하나 文獻을 찾을 수 없었고 그 印本이라는 論語集註도 寫眞版을 보았을뿐 實物은 본일이 없다.

× ×

叙上은 李朝時代에 使用된 各種活字에 對해서 極히 簡略하게 列擧하였다. 우리나라 活字印刷術(太宗三年을 完成年으로 보고)은 Gutenberg의 西洋印刷術에 比해 約半世紀를 앞섰고 獨自的인 發達을 거듭하여 壬辰亂까지에 黃金時代를 이루었으나 漸次 衰殘해버렸다. 當時에 印出된 書籍을 對할때마다 그 무게 있고 아름다운 活字印刷術에 再三 놀라움을 禁할 길이없다.

한마디 附言하는 것은 各圖書館에서 收藏하고 있는 活字本의 綜合 書誌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甚 意義가 있을 것으로 한다. (筆者建大圖書館副館長)

參考文獻 金元龍 韓國古活字概要
 于 昉 朝鮮文化史序說
 金壽卿譯
 金斗鍾 書體上으로 보는 近世朝鮮
 活字體의 變遷(書誌1卷1號)
 李朝實錄
 前問恭作 古鮮冊譜